

'진짜 우리맥주' 축제 열린다 "문화도시 익산 조성 위해"

제1회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9월 16~18일

9월 국내 유일 국산맥주로 만든 수제맥주 도시 군산에서 최정상 블루스 뮤지션이 총 출동하는 첫 수제맥주축제가 열린다.

시는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에서 '제1회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맥주는 주원료가 군산에서 생산되는 보리로, 원료 재배부터 맥주 양조까지 지역에서 이뤄지는 군산 맥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나의 도시, 나의 맥주'라는 슬로건으로 군산시민과 수제맥주 매니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 수제맥주 축제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맥주축제인



'옥tober 페스트'와 같이 지역 수제맥주 업체만 참여하며, 맥주와 함께 군산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14개의 지역 대표 음식점이 함께 참여해 차별화된 맥주축제로 펼쳐진다.

특히 맥주와 잘 어울리는 블루스 음악을 테마로 3일 내내 행사장 무대에서 국내 최정상 블루스 뮤지션들의 고품격 음악공연이 라이브로 펼쳐질 예정이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선물같은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첫 날인 16일에는 대한민국 블루스의 전설인 '신촌블루스' 등 5개 그룹, 17일에는 한국의 에릭클랩튼이라 불리는 기타리스트 '김복경 블루스 밴드'를 포함, 8개 그룹, 18일에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포크와 블루스를 이끈 대표주자 '이정선 밴드' 등 5개 그룹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 드레스코드(남: 체크무늬 상의, 여: 체크무늬 또는 흰색 상의)에 맞춰 분위기에 취한다면 더욱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중앙체육공원, 교통편익강화 힐링공원 재탄생

주차장 편의 공간 확대... 분수지 구름다리 · 생태연못 조성 산책로 전면 교체

익산 중앙체육공원이 교통 편익을 강화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된다. 시는 도시민들의 생활체육 중심지인 중앙체육공원에 주차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 시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 친화 공간을 조성해 힐링공원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체육공원은 2008년 조성 이래 19년동안 익산 대표 공원 역할을 해왔지만 국화축제와 예술의 전당 대형 행사 시 교통혼잡, 주차난 등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8월 말 제2주차장을 완공해 기존 60면에서 자연친화형 180면으로 주차장을 확대했다. 기존 주차장 178면과 지난 2019년말 익산문화원 맞은편에 조성한 265면의 임시주차장을 포함하면 663면의 대형 주차 공간을



익산 중앙체육공원이 교통 편익을 강화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된다.

확보한 셈이다. 주차장 진입 도로변의 원할한 차량 흐름을 위해 진출입 도로를 확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문화도시 붐업 조성 행정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익산시가 문화도시 시민 붐업(bump up) 조성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시는 지난 29일과 31일 이틀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도시 행정역량 강화 워크숍'을 무형문화재 통합전승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문화도시 조성에 시민

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부서별 연계성 강화하고 시민들의 사업 효과 체감도 향상에 대한 정책고민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음면동, 문화도시 연계부서 담당자 등 전 부서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출신의 예술인 이희정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원도연 문화도시

지원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행정의 역할에 대한 강의, 질의응답과 퀴즈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간의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이뤄졌다.

/익산=이재춘기자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강사 인력풀 모집

익산시가 음악으로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 2023년 1시민 1악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강사 인력풀을 본격 구축한다.

시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시민에게 악기 강습을 지도할 강사를 9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습 분야는 동·서양 악기 구분 없이 모집하며, 악기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 자격요건은 △악기 강습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공공기관, 학교에서 강의 관련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강의 관련 분야의 교원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강의 관련 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올해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천원이며, 내년도 강사비는 올해 시범사업 참여자 의견 청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업은 일주일에 2회 실시되며

1회당 1시간 30분씩 진행된다.

인력풀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경력경쟁서류, 응시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춰 문화관광산업과와 6개 협약 기관 및 단체(원광대학교, 익산문화원,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국예총익산지회, 익산민예총)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사 채용은 선정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오는 9월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풀 구성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강사 인력풀이 구성된 후에는 수강생 모집과 지원 팀 선정, 강사 매칭 과정을 9월 완료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악기 강습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화관광산업과(063-859-529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시민1악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데 무엇보다 강사분들의 역할이 크다"며 "문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우수 강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왕궁천, 재해예방 친수공간 올해 말 준공 목표

익산시 왕궁천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재해예방 친수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는 왕궁천 정비사업 구간 중 1단계 하류부 4.62km에 대해 제방보강, 교량 5개소 재가설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왕궁천은 만경강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접 농경지에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제방이 없는 구간과 노후 교량들로 인해 안전 관리에 취약했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473억원을 들여 2019년 3월부터 왕궁천 익산보석박물

관에서부터 춘포면 익산천 합류점까지 약 9.25km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해 홍수대응 제방보강 및 노후 교량 9개소 재가설 등 전반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 중이다.

이달까지 익산천 합류부에서 홍암교까지 1구간 사업이 마무리됐고 홍암교 서 보석박물관에 이르는 구간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앞으로 정비할 관내 하천은 자연친화적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블록 및 자연석 등으로 수변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형 여울 및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규제혁신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31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규제전문가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의 임택진 과장을 초청해 '규제혁신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적극행정'을 주제로 부서장 등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임 과장은 규제혁신 의의 및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필요성, 규제혁신의 여러 사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해 참여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관련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추석 연휴 공직자 '청렴 주의보' 발령

군산시는 9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추석 연휴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자간 확립에 나선다.

청렴 주의보는 선거철,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발령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이다.

이번 청렴 주의보 발령 내용에는 추석 명절 기간 직무 관련 자료부터 금품·향음·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의 자제, 추석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1년간 시 행정을 경합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추석 명절에 편승한 부패·부조리 발견 시 군산시 익명제보시스템(레드투슬)을 통해 신고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관용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직자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